

# 매출 오르는 5단계 네이밍 가이드

## 이 프로세스가 왜 중요한가?

네이밍 사업을 시작한 첫 달에 프로세스 없이 무작정 이름을 지어봤지만, 결과는 처참했다. 고작 월 18만 원을 벌었다. 절박한 마음에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, 제대로 된 이름 하나 건지지 못했다. 그러던 어느 날, 한 고객이 나에게 말했다. **“이게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?”**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. 그 즉시 100% 환불을 해드렸고, 며칠 동안 한숨만 쉬었다.

그때 깨달았다. 이름 하나로 돈을 벌려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, **체계적이고 검증된 ‘과정’**이 필요하다는 것을.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**5단계 프로세스**를 만들어냈다. 이 과정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,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름에 새기는 방법이다. 잘 만들어진 이름은 이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고객들의 기억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

## 1단계: 업종 분석 - 성공한 이름의 비밀을 파헤치기

내 업종의 잘나가는 업체 이름을 모아 그 의미와 발음을 분석하자. 이름 하나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는 것이다. 왜 이 이름이 성공했는지 분석해보자.

## 2단계: 단어 수집 - 이름의 재료 20개 이상 모으기

내 업종과 관련된 단어를 구석구석 모아보자. 베이커리 카페라면 '달콤한', '구움' 같은 단어를 모으는 식이다. 단어를 많이 모을수록 조합할 때 다양한 가능성이 생긴다. 최소 20개 이상 모으고 네이밍 제작을 시작하길 바란다.

## 3단계: 단어 조합 - 창의적인 네이밍 기법 활용하기

수집한 단어를 조합해 보자. '한글+영어', '의성어+업종' 등 여러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보자. 예를 들어, '이너푸름'은 'Inner'와 '푸름'을 합친 이름이다. 여기에 언어유희나 의태어도 넣어보면 기억에 남을 수 있다. 돈되는한줄의 네이밍 기법은 무려 16가지를 사용한다. 이 기법은 다음에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겠다. 지금은 이 프로세스를 익히는데 집중하도록 하자.

## 4단계: 상표권 확인: 안전한 이름 만들기

후보 이름을 정했다면, '키프리스'와 '마크인포'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자. 업종 코드까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.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. 선순위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반 명칭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이름은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자.

## 5단계: 이름에 스토리 부여하기: 브랜드의 영혼 담기

단순히 잘 들리는 이름이 아닌,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스토리를 붙이자. 예를

들어, '올클루'는 'All+Clue'로, 성적의 모든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 이렇게 하면 고객의 마음 속에 오래 남게 된다.

## ✔ 결론

이 5단계를 잘 따르면, '첫눈에 빛나는 이름'을 만들 수 있다. 네이밍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다. 업종의 성공 사례에서 배우고, 관련 단어를 모아 조합하고, 상표권까지 철저히 확인한 후, 브랜드의 철학과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. 그러면 당신의 이름도 고객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.

✦ **당신의 사업이 빛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파이팅!**